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언 - 마태복음 21:29-31의 두 아들 비유에 관한 번역 -

조재형*

1. 들어가는 말

『개역개정』 마태복음 21:29-31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번역은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큰 혼란을 준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인들이 많이 보는 NIV 성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네스틀레 알란트 27판(NTG²⁷)을 따라 첫째와 둘째 아들을 바꿔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아는 지인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심각하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개역개정』	NIV	NTG ²⁷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막아들 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8 “What do you think?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today in the vineyard.’	28 Τί δὲ ὑμῖν δοκεῖ; ἄνθρωπος εἶχεν τέκνα δύο. Ἐπροσελθὼν τῷ πρῶτῳ εἶπεν· Τέκνον, ὑπάγε σήμερον ἐργάζου ἐν τῷ ἄμπελῶνι.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강서대학교 학술 연구 교수. disciples.cho@gmail.com.

『개역개정』	NIV	NTG ²⁷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29 “ I will not, ” he answered,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29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Ὁ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ἠπήλθεν.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0 “Then the father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thing. He answered, ‘ I will, sir, ’ but he did not go. ”	30 Ἐπρὸς τὸν ἄλλουτον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ὼ,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ἠπήλθεν.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1 “Which of the two did what his father wanted?” “ The first, ”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Truly I tell you,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re entering the kingdom of God ahead of you. ”	31 τίς ἐκ τῶν δύο ἐποίησεν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Ἔλεγουσιν· Ὁ πρῶτος.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ὅτι οἱ τελώναι καὶ αἱ πόρναι προάγουσιν ὑμᾶς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강조는 필자가 함

필자는 지인의 질문에 대해 『개역개정』은 네스틀레 알란트 25판(NTG²⁵)을 따라 번역해서 그렇고, 영어 성경은 NTG²⁷을 따라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간략하게 대답했다. 다행히, 2005년에 발행된 가톨릭의 『성경』과 2021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NTG²⁷의 번역과 일치한다. 다행히 이 비유에 관한 NTG²⁷과 NTG²⁸의 본문 상의 차이는 없다. 또한, 세계성서공회가 발행한 <그리스 말 신약 성경>(The Greek New Testament) 4판과 5판의 비평 장치는 네스틀레 알란트 판과 조금 다르지만, 본문 자체는 똑같다. 2017년에 틴데일 하우스(Tyndale House)에서 발행한 <그리스어 성경>은 21:30의 ‘헤테로(ἑτέρω)’를 ‘듀테로(δευτέρω)’로 바꾼 것만 제외하면 그 본문은 NTG²⁷과 같다.¹⁾ 그러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 사본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읽기가 가능하므로 각각의 이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D. Jongkind, ed. *The Greek New Testament* (Wheaton: Crossway, 2017).

2. 마태복음 21:29-31의 첫째와 둘째 아들에 대한 다양한 이문²⁾

2.1. 첫째 이문

첫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은 ‘첫째’(πρῶτος) 사람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이 이문은 어떤 사람이 맏아들에게 갔다가 그다음에 둘째(또는 다른) 아들에게 간 이유를 무리 없이 설명해준다. 첫째 아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아버지)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은 요구를 한 것이 된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종종 나오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는 주제를 잘 반영한다(마 19:30; 20:16).³⁾ 이 읽기를 지지하는 사본은 κ , C*, K, W, Δ, Π, it^{c, q}, syr^{c, p, h}, al 등이다. 이 읽기는 4세기경에 만들어져서 신약성서 사본 목록의 첫째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문자 체로 기록된 완전한 신약성서 사본으로 유명한 시네 사본(κ)의 지지를 받는다.⁴⁾ 또한, 1906년에 발견된 4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초반의 복음서 사본인 W의 지지도 받는다.⁵⁾ 그래서 NTG²⁷, NTG²⁸, GNT⁴, GNT⁵는 이 첫째 이문을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NIV, RSV, NAS 등)과 가톨릭 『성경』과 대한성서공회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여기에 속한다.

2.2. 둘째 이문

첫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말했지만 그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은 ‘마지막’(ἔσχατος) 사람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이 이문에서는 오직 ‘첫째’(πρῶτος)를 ‘마지막’(ἔσχατος)으로 바꾸었다. 이 이문을 포함하는 사본은 D, it^{a, b, d, e, ff2, h, l}, syr^s, al 등이다. 이 읽기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사본보다 다량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5세기의

2) 브루스 메츠거(B. M. Metzger)는 이 비유에 관해 크게 세 가지 이문으로 구분하였다.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4), 45-46.

3) R.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Handbook for a Mixed Church under Persecu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4), 421.

4) 브루스 메츠거, 바트 어만, 『신약의 본문 - 본문의 전달, 훼손, 복원』, 장성민·양형주·라병원 공역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9), 93-94.

5) Ibid., 118.

배자 사본(D)의 지지를 받고 있다.⁶⁾ 이 이문은 가졌다고 말한 둘째 아들이 나중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따랐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기에 세 가지 이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2.3. 셋째 이문

첫째 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이후에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은 ‘후자’(ὑστερος)라고 대답한다.⁷⁾ 이 이문을 포함하는 사본은 B, Θ, f¹³, 700, syr^{pal}, arm, geo, al 등이다. 우선 이 이문은 가장 가치 있는 사본으로 평가되는 바티칸 사본(B)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개역개정』의 본문은 이 이문을 따라 번역되었다. 이 읽기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유대인을 첫째 아들로, 이방인을 둘째 아들로 해석하여 유대인의 거부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로마서의 해석(롬 11:11-15)과도 잘 맞아떨어진다.⁸⁾ 누가복음 15:11-32에 나오는 성실한 첫째 아들과 방탕한 둘째 아들의 비유도 이 이문을 채택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바로 이어 나오는 31-32절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옳은 길을 가르친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설명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즉, 첫째 아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버지는 다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은 내용을 말했는가? 오히려,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⁹⁾ NTG²⁵에 있었던 이 본문은 NTG²⁷과 NTG²⁸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더는 이 이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도 NTG²⁵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역개정』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개역개정』의 본문이 바뀐다면 꼭 첫 번째 이문만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이문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인가?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두 아들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유의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Ibid., 104-105.

7)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W. F. Arndt and F. W. Gingrich, trans., 3rd ed.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044.

8) W. E. Langley, “The Parable of the Two Sons (Matthew 21:28-32) against Its Semitic and Rabbinic Backdrop”,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8:2 (1996), 230-231.

9) B.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46.

3. 두 아들 비유의 구조와 상황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 가지 이문은 나름대로 중요 사본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각 이문 간의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읽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마태복음 21:29-31 본문을 둘러싼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와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비유는 유다 지방에서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학적 구조(마 19:1-25:46) 안에 자리 잡고 있다.¹⁰⁾ 두 아들의 비유(마 21:28-32)는 뒤따르는 포도원 농부 비유(21:33-46)와 혼인 잔치 비유(마 22:1-14)와 같은 주제를 다룬 비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다. 이 세 비유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¹¹⁾ 이런 맥락에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누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둘째(다른) 아들인가? 첫 번째 이문은 둘째 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지시하고, 셋째 이문은 첫째 아들을 유대교 지도자들로 지시한다. 두 아들의 비유 이후에 바로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21:34-46)에서도 ‘포도원’(ἀμπελών)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포도원 농부들은 명백하게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다. 이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예수에 대한 배척과 살인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보여주는 아들에 대한 배척과 적대감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약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이 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두 아들의 비유 앞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 비유(마 20:1-14)는 바로 이 두 아들 비유의 의미를 예고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두 비유의 배경도 ‘포도원’(ἀμπελών)이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ἐργάτας, 20:8)이라는 용어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으로 가서 ‘노동하라’(ἐργάζου, 21:28)라는 명령어는 모두 ‘일한다’라는 주제를 포함한다.¹²⁾ 또한, 두 비유에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라고 할 때 ‘취파고’(ὑπάγω)를 사용한 것도 두 비유의 연속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 오후 다섯 시에 도착해서 일한 일꾼들을 제외하고 먼저 왔던 일꾼들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새번역』, 마 20:16,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가

10) J. Cho, “The Gospel of Matthew”, J. Thomaskutty ed., *An Asi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2022), 58-59.

11) R.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Handbook for a Mixed Church under Persecution*, 421.

12) *Ibid.*, 422.

첨가되어 있음)라는 첫째와 둘째가 바뀐다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잘 드러난다. 즉, 나중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꾼들이 주인의 뜻을 잘 따른 것이고, 먼저 왔던 일꾼들은 주인의 뜻을 잘못 따른 것이어서 그들은 ‘악한’(πονηρός) 자들이다(마 20:15). 이 관점에서 첫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가 다시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음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 ‘마지막’(ἔσχατος) 아들로 나오는 두 번째 이문은 새로운 사본학적 증거와 연구가 나오지 않으면 교회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첫 번째 이문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을 엄두에 두지 않고, 그 당시 그리스-로마 세계 안에 사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대답을 면전에서 하는 것은 아버지께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특히 구약 성경은 물리적인 반역을 언어적인 반역과 같이 처리하는 예를 자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15-17은 자기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시시하게 여기는 자도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새번역』

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לָקַח)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한글로 “저주하는”(curse)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칼랄(לָקַח)’의 원래적인 뜻은 ‘가볍게 여기다’ 또는 ‘하찮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동사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모욕한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¹³⁾ 비록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지만, 이미 첫째 아들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상태가 되고, 반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면전에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일하러 가지 않았어도 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모욕한 것을 뉘우친 것이지, 일하러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여러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나 불순종은 되지 않는다. 둘째 아들(다른 아들)은 이미 첫째 아들의 모욕적 언사로 마음이 상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한 것이다.¹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마 20:1-16)가 보여주듯이 주인은 일꾼들이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또는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것). 문제는 주

13) W. E. Langley, “The Parable of the Two Sons (Matthew 21:28-32) against Its Semitic and Rabbinic Backdrop”, 232-233.

14) Ibid., 234.

인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고 면전에서 주인을 모욕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 비슷하게 두 아들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마 21:33-46)에서도 문제는 주인의 선의(농사를 짓게 하여 열매를 얻도록 한)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인 악한 행동에 있다. 그들 역시 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와 둘째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가는 전체 마태복음 구조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개역개정』 개정을 위한 본문도 결정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 이문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4. 나가는 말: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가지 이문은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바티칸 사본의 중요성과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에 의의를 둔다면 세 번째 이문이 가장 우위를 점하고, 본문비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더 어려운 독법’이 원문에 가깝다는 것을 고려하면 두 번째 이문이 원문과 가장 가깝다.¹⁵⁾ 성경의 전통적 해석 관점에서는 세 번째 이문이 더 원문과 가깝게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이문은 두 번째 이문과 세 번째 이문 사이에서 신학적으로나 사본학적 증거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한다. 『개역개정』의 개정판은 적어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가톨릭의 『성경』처럼 최신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근거해서 첫 번째 이문을 가지고 번역되어야 한다. 1세기 비유 자체가 들려진 청중들의 정황과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와 신학을 무게 있게 다룬다면 두 번째 이문이 학자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 번째 이문은 현재로서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번역』, 『공동』, 그리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처럼, 『개역개정』의 개정판도 세 번째 이문을 번역하여 각주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어쩌면 현대 독자들은 성서학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두 아들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5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5일)

15) 마이클 크루거 편, 『성경신학적 신약개론』, 강대훈 외 번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589.